

중머리재 훼손 막기 탐방로 펜스 설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3년...5대 핵심사업 발표

평두메습지·너털지대 동식물 서식지 중점 보호 생태체험관 내년 완공...파크프렌즈 봉사단 운영도

연간 300만명이 찾는 무등산 중머리재의 훼손을 막고 식생 복원을 위해 보호시설이 설치된다.

국립공원 지정 3주년을 맞은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머리재 훼손지 복원 ▲서식지 중심의 자원관리를 통한 생태계 건강성 증진 ▲시민참여형 국립공원 만들기 ▲무등산 생태탐방체험시설 확충 ▲저지대 수평 탐방 프로그램 도입 등 올해 추진하기로 한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우선 수백만 탐방객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되면서 훼손이 심했던 중머리재의 식생 복원을 추진한다. 지정된 장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펜스 등 보호시설도 설치하고 탐방로도

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아파트 개발지에서 심층토양을 확보한 무등산공원사무소는 환경부 인증 업체에 의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머리재 훼손 지역에 외국산 종자가 섞이지 않은 토양을 이식하고 무등산 정상부의 식물을 옮겨 심을 방침이다.

탐방객 이용시설도 최소화해 '머무는 공간'에서 '지나는 경로'로 중머리재 이용 패턴의 변화를 시도한다.

생태 자원 관리의 방향을 '종(種) 중심'에서 '서식지'로 전환하고 평두메습지, 너털지대의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종별 생태자원을 관리하는 방식보다 동·식물의 거처가 되는 서식지 자체에 초점을 맞춰 생태자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평두메습지

는 북방산개구리의 최대 서식지로 무등산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장소이며 너털지대는 크지 않은 바위들이 밀집한 곳이다. 왕다람쥐꼬리 등 희귀식물 서식지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시민참여형 국립공원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별 파크프렌즈(Park Friends) 자원봉사단체를 모집·운영한다. 국립공원 자율레인지와 착한산악회를 주축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정기적인 현장 관리 활동을 펼친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인근 4만 4000㎡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생태탐방체험시설을 건립한다. 생태체험관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전시·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숙박하며 무등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탐방교육관과 테마식물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정상 정복형(등정) 수직 탐방에 집중된 탐방객의 등산습관을 저지대 수평 탐방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로 ▲무등산 생태계의 재발견 ▲훼손지 복원 ▲안전한 탐방 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23개 분야에 걸쳐 자연자원 종합조사를 한 결과, 도립공원 시절보다 60% 증가한 3691종의 생물자원이 확인되면서 무등산이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탐방객 안전을 위해 안내표지판, 탐방지원센터 등 868개 공원시설물을 보수하고 63개 탐방로 165km 전구간에 대한 조사 후 23개 노선 34.8km를 친환경 정비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50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정상 군부대 이전사업도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영석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이 보전과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나 왔어요” 봄의 속삭임 꽃샘추위가 물러난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운데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왜곡 초등교과서 폐기하고 집필진 공개하라”

5·18단체 “사실관계 바뀌어”...시교육청 “위안부 기술 축소”

5·18 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후 새로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축소됐다”며 “교과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집필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는 2일 “이번 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는 역사기술의 기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원인, 진

행과정, 결과, 파급효과 등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5·18단체들은 “새 교과서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계엄군으로 광주에 배치된 공수부대가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자 광주시민이 운명으로 불의에 저항했던 항쟁”이라며 “하지만 새 교과서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군이 동원된 것처럼 황당하게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새 교과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5·18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며 “교과서 필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6학년 사회 신·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에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로 기술된 부분이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로 바뀌었다. 임시부추정되는 여성 등 4명의 ‘위안부’와 총을 든 일본군이 나란히 등장하는 사진도 빠졌다.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3 개정 6학년 사회교과서를 이번엔 새로 제작, 배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해질 18:30

달출몰 02:04 달몰입 12:39

봄 내음 물씬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3/18	보성	구름많음	-3/15
목포	구름많음	3/15	순천	구름많음	2/16
여수	구름많음	5/13	영광	구름많음	2/17
나주	구름많음	0/19	진도	구름많음	2/16
완도	구름많음	-2/17	전주	구름많음	3/18
구례	구름많음	-1/15	군산	구름많음	2/16
강진	구름많음	-1/16	남원	구름많음	0/18
해남	구름많음	-1/16	축산도	구름많음	7/13
장성	구름많음	0/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1.0~2.0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남동~남	0.5~1.0
서부	면바다(동)	남서~서	1.0~2.0	남동~남	1.0~1.5
	면바다(서)	남서~서	1.0~2.0	남동~남	1.0~1.5

◇돌매

		밀물	썰물
목포		08:24	00:51
		20:34	14:04
여수		03:40	10:16
		15:56	22:04

◇주간 날씨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	☁	☁	☁	☁	☁	☁
9/17	10/15	7/13	3/16	3/14	2/9	0/8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감기	높음
뇌졸중	보통

“메타프로방스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담양군 ‘인가 무효’ 판결에 상고... “지역경제 파탄”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인가 무효 판결’(광주일보 2월 24일자 6면)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2일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 기업의 도산과 입주한 상가주인들의 재산권 상실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상고를 통해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법과 행정의 인선성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정별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주민 2명이 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2월 24일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최 군수는 이와 관련 “담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기에 따라 벌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친척형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었다”며 “군민들은 누구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화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교육감협, 정치권에 10일 누리예산 긴급 토론회 제안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치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오는 10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0일 각 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